

1. 유럽철학:

코페르니쿠스 지동설의 등장으로 대표되는 16-17 세기 과학혁명기와 18 세기 뉴턴과학의 영향을

모두 받아, 유럽철학은 중세의 어둠을 이성의 햇불로 개혁했다고 믿는 계몽주의의 전통을 가진다.

이후 계몽주의는 사회적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부르짖은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지면서, 유럽철학은

과학적 합리성과 인간 역사의 발전에 관한 논의를 모두 공유한다. 다시 크게 영미철학과 대륙철학으로 나뉜다.

2. 영미철학 :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덴마크, 네덜란드 등의 철학

- 시각 후각 청각 촉각 미각 같은 오감을 활용하여 자연에 대한 관찰로부터 인간 지식의 확고한 기초를 세우는 것이 철학의 목적이라고 믿음
- 경험주의 철학이라고도 함
- 아리스토텔레스, 프랜시스 베이컨 등이 대표자
- 20 세기 초중반에는 경험주의가 세분화되어 논리경험주의(혹은 실증주의)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해 짐
- 경험주의는 현대 실험 과학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현대 실험 과학의 사상적 어머니
- 영미철학에서 인간은 사회적 집합체라기보다 개인이라는 개별적인 존재로 취급된다. 그 개인이 그를 둘러싼 주변 세계와 우주에 대한 (시각적) 관찰을 문장들로 만들면 참/거짓의 이분법에 근거한 논리적 장치를 써서 이런 문장들을 분석하기를 좋아함

1. 대륙철학 : 현대 프랑스와 독일의 철학

- 경험주의와는 대비되는 관념론의 전통이 강함
- 관념론은 경험을 초월하는 이상과 관념 세계에 대한 이해가 철학의 목표라고 믿으므로 따라서 자연의 관찰보다는 삶 신념 윤리 정치 사회와 관련되는 문제에 관심이 훨씬 더 높음
- 특히 독일 철학에서는 헤겔의 관념론이 큰 영향을 미침
- 헤겔은 그런 것과 그렇지 않은 것(즉 모순) 사이의 갈등이 역사발전의 원동력이라고
→ 맑스는 이런 모순 갈등 중에서도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 간의 모순적 갈등에 큰 관심을 보임. 그는 이 갈등을 계급투쟁이라고 불렀으며

이것을 자본주의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봄

→ 이런 전통을 다시 이어받은 독일의 사회철학을 비판이론이라고 함

- 비판이론은 1930년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 발전되었기에 비판이론가들을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도 부름